종단 신뢰회복 화두… 첫째도 둘째도 '화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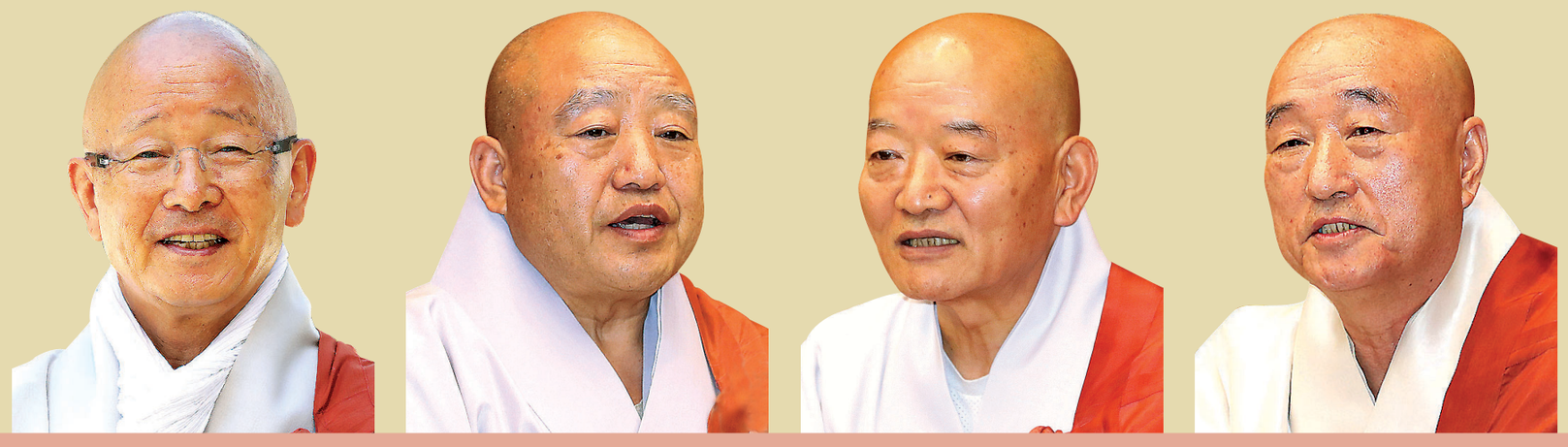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선거
후보자 종책토론회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최초로 중앙선관위 주최 후보자 종책토론회가 열렸다. 9월 19일 중앙종회, 20일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주관한 이틀간의 토론회서 네 명의 후보자들은 대동소이하지만 각자 확고한 견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종책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두 번의 종책토론회 내용을 정리, 질문과 각 후보들의 답변을 정리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후보별 각 분야 주요종책



	기호1번 혜총 스님	기호2번 원행 스님	기호3번 정우 스님	기호4번 일면 스님
최우선 종책	▶직선제 · 본사주지 단임제 ▶비구니교구 설립	▶국민연금 등 전액지원 ▶1만2천여 승려로 확대	▶교구중심제 ▶교구 특별분담사찰 지정	▶교구중심제 ▶교구별 복지사찰 지정
포교전략	▶화주로 33층 빌딩 건설 ▶포교단체 임대 제공	▶불교문화특별위원회 구성 ▶신도시 포교 전념	▶문화중심 포교 접근 ▶지역 이바지 도량 변화	▶지역 불교회관 중앙 재정지원
교구중심제	▶인사권 · 징계권 · 재산권 교구 이양	▶인사권 · 재산권 교구 이양	▶인사권 교구 이양 · 겸직금지 해제	▶인사권 · 징계권 교구 이양
신뢰회복 방안	▶수행과 포교 매진	▶소통과 화합 위한 위원회 구성	▶포교현장 확대로 활동 강화	▶종단미래발전위원회 구성

질의응답 앞서 각 후보별 인사말

혜총 스님 : 1953년 스님이 돼 자운 스님을 40년간 모시면서 수행했다. 해인사와 범어사 승가대학,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종단 위해 일해왔다. 1994년 종단개혁 때도 그렇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종단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고, 이를 확립해야 불교도의 신앙심과 국민들의 신망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맞춰 수행하는 종단, 전법하는 종단, 함께하는 종단, 존경받는 승단이라는 4가지 기조와 각각 7가지의 실천과제를 정리했다. 67년간 수행정진한 역량을 바탕으로 종단에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 모든 사부대중과 국민이 바라보는 엄숙한 자리를 빛나게 하겠다. 저의 원력에 힘을 보태 달라.

원행 스님 : 화합과 소통으로 미래불교를 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앞서 일련의 종단 사태를 직면하고, 함께 고민해온 측으로서 종도와 불교를 위해 모든 역량과 정성을 바치겠다.

이를 위해 7개의 중점 종책을 세웠다. 최우선적으로 화합과 소통으로 종단이 하나 돼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스님들의 복지정책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교구중심으로 종단을 이끌어가겠다. 이뿐만 아니라 불교문화를 창달하는데 앞장서고, 스님과 신도 교육에 매진하겠다. 끝으로 모든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보살불교를 실천하는 한편, 사회에 환원하는 회향의 정신이 담긴 종책을 펼치겠다.

정우 스님 : 출가한지 50여 년이 됐다. 구룡산 자락에 포교당을 개원하고 30년 이상을 대중포교 현장에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총무부장 소임을 보면서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목도했다.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지금 종단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 10대 운영기조를 설정했다.

1984년과 1994년 소임을 살던 당시와 달리 지금의 종단은 큰 조직으로 확대됐다.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겠는가. 교구본사중심의 행정을 하면 가능하다. 원탁회의처럼 많은 스님들과 풀어갈 난제가 많다. 불교문화 창달은 물론이고 승가복지와 비구니 권익향상, 종단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 현안을 다뤄야 한다. 평소 승가공동체는 종지를 따르고 공유의 살림을 해야 한다는 게 지론이다. 자신이 머무는 곳에 참여하며 이바지하는 승단이 되도록 하겠다.

일면 스님 :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할 때 은사이신 명허 스님께서 부르셨다. 은사께서 "너는 이제 글공부 그만하고 참선해서 도인이 되라"고 당부하셨을 때 "물론 참선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도인은 참 많다. 저는 행정분야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이후 복지, 사찰운영, 학교운영 등 다방면에서 공부를 하다 큰 병을 얻었다. 부처님 은혜로 살아나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고민하면서 출마했다.

저의 장점은 2가지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려 하는 점, 무슨 사안이 있을 때 전문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종책은 세 후보들과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겠다. 그리고 많은 스님들이 함께 손잡고 걸어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1. 당선 시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종책은?

혜총 스님 : 직선제를 실시하겠다. 간선제는 여태까지 잘했지만 이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또한 본사 주지는 단임제로, 말사 주지는 10년제로 변경해 권력 집중을 막고 현장포교 역량을 키워야 한다. 승려 가운데 절반이 넘는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을 위해 비구니교구를 만들고, 중앙종무직에 30~40%를 등용하겠다.

원행 스님 : 1만2천여 승려들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전액 지원하겠다. 현재 1500여 명에게 지원되고 있지만 이를 1만 명까지 확대하면 약 6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승보공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교구별 분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

정우 스님 : 교구중심제를 실현하겠다. 호법부 인사조회와 분담금 납부 등을 중앙종무기관과의 전자결제로 진행하고, 나머지 업무는 교구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 또 교구별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해 수입을 교구 승가복지 등에 활용케 하고, 중앙분담금 28억 원을 포교 낙후지역에 활용하겠다.

일면 스님 : 교구중심제를 추진하겠다. 말사주지 인사권 등을 교구본사주지가 갖도록 하고, 본사 내 문제도 총무원 호법부보다는 교구에서 상벌을 정하도록 했으면 한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교구마다 복지사찰을 지정, 수입 예산을 복지에 쓰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종단 안정화, 대국민 신뢰회복 방안은?

혜총 스님 : 승가는 곧 화합이다. 스님은 스님답게, 신도는 신도다울 때 가능하다. 이는 율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사리불 존자는 제자의 위의를 보고 귀의했다. 아쇼카 대왕도 14살 사미를 보고 귀의했다. 포교와 수행, 함께하는 종단으로 가야 존경받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원행 스님 : 소통과 화합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모든 후보 도덕성 자신… "문제 시 즉각 사퇴"

하겠다.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특히 비구 · 비구니 이부중은 교육과 수행 등을 균등히 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조로 함께했으면 한다.

정우 스님 : 포교 현장에서 종교 인구와 출가자 감소에 걱정이 많다. 우리들의 관심이 현장서 어우러질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전국비구니회, 대각회, 선학원 등이 많이 노력한다. 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준다면 좋겠다. 또 어른과 중진스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 중앙종회에 발의했으면 한다.

일면 스님 : 종헌종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해서 종도들의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 시대정신인 공정성과 투명성, 도덕성을 바탕으로 서로가 화합하는 마당을 만들어나가겠다. 또 신행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종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종단미래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

3. 미래사회 포교전략에 대해서

혜총 스님 : 현재 포교사뿐만 아니라 포교단체 500개가 포교공간이 없어 전전하며 산다. 종단이 보장하는 것이 없다. 봉은사 화주를 통해 3000평 대지에 33층 건물을 지어 세를 주고, 12만5천 명이 함께 법회 보는 것을 꿈꾸고 있다.

원행 스님 : 현대사회는 문화의 시대다. 총무원장 직속으로 불교문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신도시 포교당을 짓는데 전념하겠다. 또한 도농 간 협력을 통해 도심사찰과 농촌산사 결연을 추진하겠다.

정우 스님 : 우리 절에서는 축원할 때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이라고 한다. 1990년대 불교TV에서 애를 썼고, 1987년 극단 신시를 만들었다. 최근 인터넷 TV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시대가 바라는 포교의 모습이라고 본다. 지역에 이바지하는 도량이 돼야 한다.

일면 스님 :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느 본사에서 도심지에 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70%는 해당 교구에서 확보하고 나머지는 총무원장이 함께 모금해 지원하겠다.

4.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 생산불교가 필요하다. 각 후보들의 생각은?

혜총 스님 : 한 예를 들자면 선운사에는 천일염이 있다. 개암사라고 하면 죽염이 있다. 불교도가 쓰는 천일염과 죽염을 만들어 사용하면 얼마나 생산적이겠는가. 먹을 것이 있는 곳에 모여들기 마련이다.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원행 스님 :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율장정신을 기본으로 하되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분들은 철저히 계율을 지키도록 하고, 생산불교에 임하는 분들은 그에 맞는 옷을 입혀야 한다. 출가수행부와 보살불교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우 스님 : 군종교구장 시절, 장교들에게 해외불교계의 생산불교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역 후 어떻게 살지 고민할 수 있게 했다. 충북 제천에 4만평의 불교마을에서 농사를 짓는데 활용할 줄 알면 포교 원력을 살릴 수 있다. 종단서 머리를 맞대면 생산불교 구현이 가능하다.

일면 스님 : 꼭 생산적이라고 해서 논밭을 갈고 수확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스님들은 정신적으로 계발해서 일반인들이 심리적으로 힘든 것을 위로하고, 절에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선이다. 생산과 관련된 것은 불자기업가 같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5. 교구중심제가 모두의 공약이다. 어디까지 교구중심이고, 본사 인력문제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혜총 스님 : 재산권까지 교구에 이관해야 한다. 교구본사 내에도 협의회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에서 총무원에 권한이 집중된 것은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도 많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상벌권 역시 교구에 넘기고, 총무원은 대사회적인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총무원을 교육원, 포교원 지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원행 스님 : 교구중심제를 위해선 각종 법령과 규제를 풀어야 한다. 성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총무원은 대사회적인 업무와 승적, 징계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재산권과 인사권은 교구에 이양해야 한다. 인력문제는 교구에서도 방안을 강구해야겠지만 총무원 상주 직원을 줄이고, 본사 순환근무제도를 운영하면 극복할 수 있다.

정우 스님 : 재산권은 종단이 관장해야 한다고 본다. 또 본사주지들이 7직을 임명하는 것처럼 말사주지를 임명하도록 하겠다. 특히 겸직금지를 풀어 우수한 인력이 많은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력문제는 중앙종무기관의 순환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생활을 위한 지원을 하면 된다. 이를 통해 본사와 수말사들이 작은 총무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면 스님 : 재산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한을 교구에 이관할 마음자세를 갖췄다. 힘 있는 교구본사의 권한도 골고루 분배하도록 노력하겠다. 총무원장은 대정부적인 것에 앞장서면 된다고 본다. 솔직히 직원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원장이 되면 충분히 의논해 처리하겠다.

6. 당선 후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혜총 스님 : 출가수행자들은 삭발염의하고 계를 받는다. 계를 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인천의 사표가 되지만 그렇지 못해 오늘날 사태가 벌어졌다.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수행과 포교에 게으르다면 당연히 종도가 탄핵시켜야 한다.

원행 스님 : 같은 생각이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허물이 그만큼 무겁다면 즉각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

정우 스님 : 오랜 세월 참회할 일도 있겠지만 뻔뻔하게 가만히 있진 않겠다. 출가 후 50년간 떳떳하게 살았다. 30년 넘게 대중포교를 해왔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사부대중이 용서치 말아야 한다.

일면 스님 : 최대한 양심을 지키며 열심히 살았다. 과오가 있다면 그날부로 공직에서 사퇴할 것이다.

정리=신성민 · 윤호섭 · 하성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9월 19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중앙종회가 주관한 총무원장 후보자 종책토론회.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6절 (305 × 306)	정가 1,800원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 × 260)	정가 1,600원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 × 98)	정가 800원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 × 130)	정가 1,000원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 × 160)	정가 800원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 × 190)	정가 2,500원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삶의 향기(법정스님의 좋은 글)


부처님과의 소통(사찰의 옛 다리)


동승의 행복


지혜동자


연꽃향기


동승이야기


민족의 산하


법음이 깃든 산사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동진사 불교카렌다 삼보불교 불교카렌다 불교현수막 불교인쇄물 기타불교용품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